



결핵 앓으며 위기가 기회로

글_김홍준(개그맨)

대한결핵협회의 복십자지원으로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바로 SBS 웃찾사의 개그맨 김홍준이다. 입대 후 TV에서 잠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가, 결핵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핵으로 의가사 제대 후 용산에 위치한 복십자지원을 찾은 개그맨 김홍준. 보통 결핵은 6개월이면 치료가 완료되지만 그는 초치료에 실패하여 현재 재치료를 받고 있다.

항상 팬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던 그였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속앓이를 했을 개그맨 김홍준이 결핵치료 전 과정을 <보건세계>에 공개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내성동보를 받기 전엔 그냥 약간 잘 먹으면 낫다고 했는데, 2차 치료로 넘어간 후 보건소에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으니 용산에 있는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지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약을 하루라도 빼먹다간 내성이 생겨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야 결핵이 어떤 병인지, 규칙적인 복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도 끊고 치료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독하다보니 약을 먹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비슷한 증상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치료기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왔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니 빨리 병을 극복하고 일어서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치료를 하다보니 2차 치료에서도 호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2차 치료 초기 6개월간은 항결핵치료를 위해 항생제 주사를 맞느라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무거워서 집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결핵치료 중인 사실을 편하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지요.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 사람들과도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치료경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은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등 간단한 유산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스스로도 느낄 정도로 몸 상태가 호전되었고, 치료효과도 더욱 좋아져 일본여행도 다녀오는 등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 전 북한결핵아동돕기 프로그램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결핵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 북한에는 1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결핵환자가 있더군요. 그 중 30만 명이 어린이인데 치료약도 없고 의료환경이 열악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접하고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처 보건소만 가도 무료로 가까운 비용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곱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태사비에 멤버 지애 양이 결핵에 걸렸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결핵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느낀 거지만, 결핵이 어떤 병인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왜곡되어 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엔 못살아도 안 걸리는 병으로 혹은 대화만 해도 전염되는 병 등.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지는 않을까, 치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이 되어 약물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만들어 몸짱이 되리라는 욕심도 생깁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핵이 분명 힘든 병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되겠다는 의지도 생겼고요.



결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저 홍준이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